

일본 사가현 지사 예방 관련 현지 언론 보도 스크랩 - 2019.10.18.

2019년 10월 18일(금)자 사가신문 26면

2019年10月18日(金曜日) さがの政治・経済 26

日韓民間交流 継続すべき

北東アジア自治体連 幹部が知事表敬

北東アジア各国の交流を支援する北東アジア地域自治体連合(NEAR)の金

玉彩事務総長が17日、佐賀県庁を訪れ、山口祥義知事と会談した。日韓関係が悪



自治体や民間交流の重要性を述べた北東アジア自治体連合の金玉彩事務総長(右)と佐賀県庁

化する中、地方自治体や民間の交流を継続すべきという認識を共有した。

NEARは各国の自治体間の相互交流を活発にし、地域の発展と世界平和に寄与するために1996年に創設された国際機構で、韓国の慶尚北道に事務局がある。現在は日本、韓国、ロシア、中国、北朝鮮、モンゴルの6カ国から78の自治体に参加している。金氏は2017年まで在福岡韓国総領事館の総領事を務め、今年5月から現職。

意見交換では金氏が、日本では京都市や青森県、島根県など自治体が多岐に加入していることを紹介。日韓関係の悪化に

つづ「中央政府間の対立がある今こそ、わが団体が頑張って民間交流を進めないといけない。ぜひ佐賀県にも加わってほしい」と要望した。

山口祥義知事は参加の可否には言及しなかったが、

韓国・全羅南道との交流が中止になるなど県内にも影響が出ていることを「非常に寂しい」と嘆き、「日韓関係が」どんなに苦しいときでも、民間や自治体の交流を続けるという覚悟が必要では」と話した。

(大橋諒)

한일 민간교류 지속되어야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간부 지사 예방

동북아시아 각국의 교류를 지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NEAR)의 김옥채 사무총장이 17일 사가현청을 방문하여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와 회담을 하였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NEAR는 각국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한국 경상북도에 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6개국 78개 회원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2017년까지 재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역임하였으며, 2019년 5월에 당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본의 교토부와 아아모리현, 시마네현 등 11개 자치단체가 NEAR에 가입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또 양국관계의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두 정부 간 대립이 악화하고 있는 이런 시기야말로 당 사무국이 노력해서 민간교류를 촉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으며, “사가현도 회원 가입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참가 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전라남도와의 교류가 중단된 점 등 현내에도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한일관계가) 아무리 힘든 시기이더라도 민간과 자치단체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